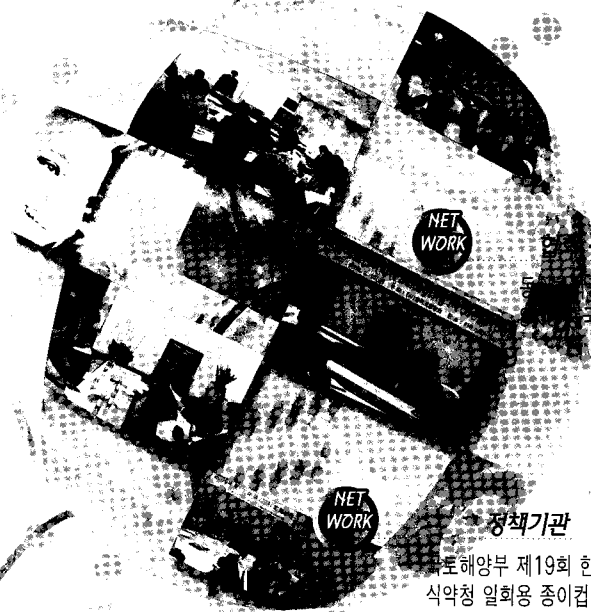


NET WORK

101001
101110100110
01001011101001

011101001
100101110
1101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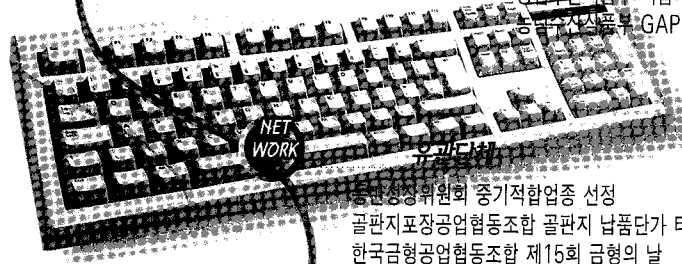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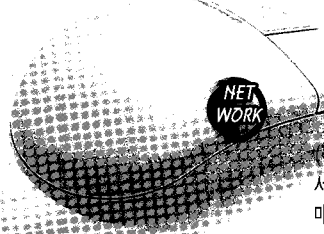
동원공업(주) NEW OPS 수축필름 개발
국 PET필름 합작공장 착공식

정책기관

국토해양부 제19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식약청 일회용 종이컵 소개
농림수산물부 식품패키징 전문센터 건립
농림수산물부 GAP안전농산물 모음전



동원성장위원회 증기적합업종 선정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 납품다가 타결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제15회 금형의 날
한국폐기물협회 2011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업계동정

(주)솔팩 3만불 수출탑 수상
서울통신기술 디자인상 6년 연속 수상
매일유업 팩스타상 수상
롯데주류 설종매 맛과 포장 리뉴얼
유화업계 FTA로 수출 증가 기대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성업,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도레이세한주
 1999. 12. 1 창립 12주년

(주)디아이앤씨
 2002. 12. 1 창립 6주년

명지산업
 1986. 12. 1 창립 25주년

세창화학(주)
 1977. 12. 20 창립 34주년

(주)영진하이텍
 1971. 12. 1 창립 40주년

(주)크리온산업
 1994. 12. 7 창립 17주년

(주)한국알미늄
 2008. 12. 24 창립 3주년

한국포장기술연구소
 1972. 12. 15 창립 39주년

동일화학공업(주)
NEW OPS 수축필름 개발
 투명도 및 물성 대폭 개선

동일화학공업(주)(대표이사 오영택)는 기존 OPS 수축필름에 비해서 투명도 및 필름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NEW OPS 수축필름을 개발, 시장에 출시했다.

현재 각종 음료병, 우유용기 등에 인쇄 수축라벨로 사용하고 있는 OPS 수축필름은 뛰어난 경제성 및 수축 안정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PS 원료의 특성으로 인한 물성적 한계로 투명도 및 인장강도, 필름경도, 내유성(耐油性)등에서 다소 미흡하여 사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화학은 지난 3년간 PS의 물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물성 개선을 목표로 NEW OPS 수축필름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여 마침내 개발에 성공, 이달부터 양산 작업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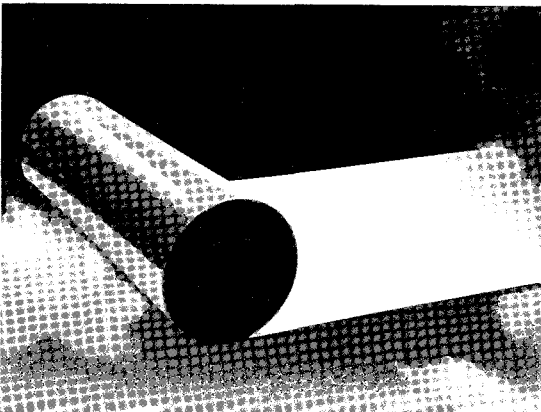
갔다.

NEW OPS 수축필름은 경쟁 소재에 비해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투명도 개선에 주력하여, PET 수축 필름과 동일한 수준의 투명도를 갖춰 인쇄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인장강도, 내구성 등을 대폭 개선, 인쇄 및 씨밍가공 작업시 작업이 용이하면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필름 경도의 개선으로 수축 가공 작업시 스틱트러블이 없고 안정적인 수축이 가능함은 물론 PET 수축필름과 동일한 두께로 사용 가능함으로 써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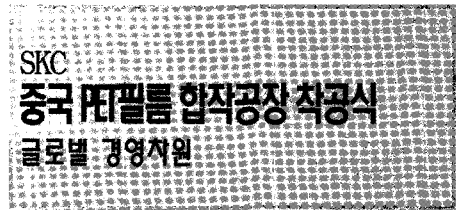
NEW OPS 수축필름은 세계 최대 OPS 수축필름 생산국인 일본 제품에 비해서도 품질면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수출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택 동일화학공업(주) 대표는 “금번 당사의 NEW OPS 수축필름 출시로 필름 사용자들의 재질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제품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됨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지난 3년간의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잊게됐다”면서 “현재 사용중인 PET 수축필름을 당사의 NEW



▲ 동일화학공업(주) NEW OPS 수축필름 개발

OPS 수축필름으로 바꾸면 최소 20%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SKC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중국에 폴리에스테르(PET) 필름 합작공장을 짓는다. PET 필름은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용도나 LCD에 들어가는 광학용으로 활용되며 식품 포장지로도 쓰인다.

SKC는지난 달 25일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서 SKC 최신원 회장과 박장석 사장, SK차이나 박영호 부회장, 도요알루미늄 마사오 이마스 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ET 필름 합작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3만㎡ 용지에 내년까지 연산 4만톤 규모의 PET 필름 2개 라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C 51%, SK차이나 39%, 도요알루미늄 등 일본 기업이 10% 지분으로 각각 참여해 자본금 총 5백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지난 8월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대주주로부터 추가 출자금을 받는 형태로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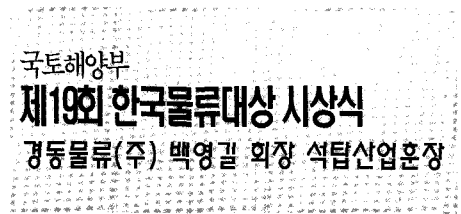
이번에 SKC와 손잡은 일본 도요알루미늄은 태양광 백시트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35%를 차지하는 메이저 기업이다.

양측은 중국 PET 필름 공동투자를 통해 전략적인 제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SKC 측은 △중국 태양광 모듈업계의 성장 △대규모 LCD 패널 증

설 △포장용기의 친환경화 등으로 PET 필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SKC는 고기능 PET 필름시장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공장이 내년에 가동하면 한국과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한 21개 라인에서 SKC는 연간 24만 t 규모의 PET 필름 생산체제를 갖춘다. 이어 추가로 3개 라인을 증설해 2015년에는 연간 생산능력을 30만 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장석 SKC 사장은 “중국 PET 필름공장 합작투자는 SKC 글로벌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글로벌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달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2차관, 석태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물류기업 임직원, 수상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해 제19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동물류(주) 백영길 회장이 중량화물 택배시장을 개척, 중소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인들의 물류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복수의 회주를 대상으로 공동보관, 공동배송 등 공동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주기업의 물

류비용 절감과 CO₂ 배출 감소에 기여한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이사과 27년간 전문물류기업인 대한통운(주)에서 항만하역, 운송, 보관, 3PL, 택배 등 다양한 분야의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건의 등 정부의 물류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세종 전무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단체 2곳, 개인 1명이 수상했는데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동원산업(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로 국민 식생활에 기여하고, 창고 자동화, 차량과제시스템 등 물류프로세스 혁신에 기여.

(주)하이닉스반도체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대신 Ferry를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CO₂ 발생을 줄이고, 제품 수출시 해외현지법인 경유없이 본사 직배송을 실시하는 등 물류혁신에 기여.

현대글로벌비스(주) 김형호 전무 : 삼성전자 물류부, CJ GLS 국제물류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국내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이 밖에도 국무총리 표창은 ▲ 대화물류(주)(단체), ▲ (주)엘지생활건강 박창대 부문장, ▲ 부산항만공사 강부원 실장, ▲ 엠큐로지스틱스(주) 김이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은 (주)한진 김상복 선장, 상신브레이크(주) 양근재 전무 등 30인이 수상했다.

한국물류대상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종합 정부포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물류·제조업 등 산업계 전반의 물류혁신 풍토를 조성하여 물류발전에 이바지한 물류인을 격려하고자 1993년에 제

정책기관

정부포상(10명, 훈장1, 포장2, 대포3, 국표4)

번호	소속	직급	성명(한자)	포상훈격
1	경동물류(주)	회장	백영길(白永吉)	석탑산업훈장
2	삼영물류(주)	대표이사	이상근(李相根)	산업포장
3	대한통운(주)	전무	김세종(金世種)	산업포장
4	동원산업(주)		(단체)	대통령표창
5	현대글로벌비스(주)	전무	김형호(金亨浩)	대통령표창
6	(주)하이닉스반도체		(단체)	대통령표창
7	대화물류(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8	(주)엘지생활건강	부부장	박창대(朴昌大)	국무총리표창
9	부산항만공사	실장	강부원(姜富元)	국무총리표창
10	엠큐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이근(金利根)	국무총리표창

정되었다.

이를 통해 3자물류, 녹색물류, 물류 정보화 등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차관은 동 시상식을 통하여 수상자를

격려하고, 물류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일회용 종이컵 소개
궁금사항 제작 홈페이지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 평균 3개씩이나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 종이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Q&A 형식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종이컵에 물이나 커피와 같은 음료를

국토해양부장관표창(30명)

순번	수상자	소속	순번	수상자	소속
1	김상복	(주)한진 포항지점	16	김기범	(주)국보
2	양근재	상신브레이크(주)	17	정재준	코레일로지스(주)
3	류귀현	한국물류터미널사업협회	18	김미주	(주)한국손슨앤드존슨
4	최종권	인천항만공사	19	문병곤	현대로지엠(주)
5	이건석	CJ GLS	20	백용주	부산항만공사
6	노영철	(주)디티씨	21	정차란	(주)한진 부산지점
7	박종택	용마로지스(주)	22	남한길	대한통운(주)대구지사
8	오두현	유한킴벌리(주)	23	한승욱	현대글로벌비스(주)
9	이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	신동철	대한통운(주)인천지사
10	이해영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25	이상석	인터지스(주)
11	류동걸	안동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	26	임동규	KGB택배 수원점
12	김영일	(주)포스코	27	김재교	동원산업
13	오창용	조양국제종합물류(주)	28	김병주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14	조임호	육군종합보급창	29	임덕빈	대일냉동(주)
15	최성원	현대로지엠(주)	30	김명현	용마로지스(주)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는 것은 통상 안전하다. 일회용 종이컵 코팅제인 폴리에틸렌(PE)의 녹는 온도는 105~110℃인 반면 물이 끓는 온도는 100℃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는 PE가 거의 녹지 않는다.

설령 극미량이 녹는다 하더라도 분자량이 매우 큰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될 수 없어 건강상 위해는 없다.

다만, 튀김·순대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는 경우 해당 식품 내 기름의 온도가 PE의 녹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PE가 녹거나 종이로부터 PE가 벗겨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종이컵 코팅에 사용되는 PE는 원래 유연한 성질을 갖는 재질이기에 때문에 제조과정 중에 별도로 DEHP와 같은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식약청은 '일회용 종이컵'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께 잘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세부내용(제조방법, 안전기준, 국내유통 제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그 결과 등)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용기포장 정보 또는 블로그[식약치킴이, <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패키징 전문센터 건립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전라북도 익산에 식품패키징 전문센터가 건립된다. 국내에 식품패키징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식품패키징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총 5천5백35억원을 투자해 1백50여개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식품패키징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식품패키징 전문기관이다. 패키징(packaging)은 상품(product)의 상태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재료, 용기 등으로 패키징(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패키징의 경우 식품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해 안전성,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식품패키징센터는 선진국 수준의 패키징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겪는 식품패키징 관련 문제를 중점 해소해 나가게 된다. 또 식품패키징 관련 법정규격 적합성 분석, 기업의 패키징 교육·컨설팅 실시, 패키징 연구개발(R&D)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세계 식품패키징 시장 2008년 기준 3억3천만달러 전체 패키징시장(4억8천만달러)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품패키징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패키

정책기관

정 전문기관을 설립해 연구개발(R&D)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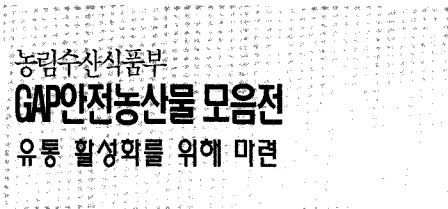
그 예로 네덜란드 푸드밸리에 위치한 포장연구소 'EC-PACK' 과 덴마크 포장기술연구소 'DTI P&L', 스웨덴의 포장회사 '테트라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테트라팩'은 연간 1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식품패키징 전문 기관이 없어 식품기업이 신제품 개발시 새로운 포장개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며 "식품패키징센터를 설립해 식품패키징 관련 글로벌 연구소,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R&D 수행으로 패키징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부터 GAP인증 농산물 판매실적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9월말기준 4백46억원의 GAP농산물을 판매했다.

농협은 지난해 7월 '전국GAP생산자협의회' (66개 농협)를 발족했다. 전국 GAP 인증농가 34천 농가중 30%에 해당하는 1만여 농가를 심사·인증했고, 올해안에 1만3천농가(38%)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 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GAP를 도입했으며 농협중앙회가 GAP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됐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하나로클럽(양재·창동·고양·성남·수원)에서 'GAP안전농산물 모음전' 행사를 개최했다.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GAP인증 농산물 시식과 이벤트 등이 열렸다.

농협중앙회에서 사전에 산지를 현장방문하고 상품화를 거친 상주모서 포도, 남원운봉 파프리카 등 전국 유명 과일과 채소가 출하됐다. 농협은 지난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달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Korea Food Expo 2011」(이하 코리아푸드엑스포 2011)이 국내 최대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했다.

KFE 2011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식품산업,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라는 주제 하에 식품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코리아푸드엑스포 2011」은 크게 ① 주제전시관 ② 비즈니스관 ③ 식품 컨퍼런스 ④ 비즈니스 매칭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주제전시관은 '세계가 주목하는 웰빙 K-Food'라는 컨셉으로 K-FOOD 주제영상관, K-FOOD 재발견 Zone, K-FOOD 미래로 Zone, K-FOOD 세계로 Zone 으로 구성되어 코엑스 3층 C홀에서 전시됐다.

주제영상관은 '세계인의 그릇에 K-Food를 담다'라는 컨셉으로 그릇을 형상화한 6m 높이의 장독을 형상화한 형태로 제작되어 한국식품이 가진 웰빙적 가치와 비전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제공했다.

'제1존 K-Food의 재발견'은 한식철학, 한식의 과학, 느낌의 미학 코너를 통해 한국식품의 웰빙가치를 재발견하는 공간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제2존 K-Food 미래로'는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기술, 안전, 문화적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가미된 한국 식품 산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제3존 K-Food 세계로'는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준다. 한식홍보대사인 슈퍼주니어가 추천하는 9인9색 한식 이야기, 스페인 마드리드 푸전에 출전하는 선재스님, 임정식, 임지호와 같은 스타 셰프의 이야기, 세계에 불고 있는 K-Food 열풍을 한 자리에서 보여줬다.

비즈니스관은 국내외 우수식품기업 전시관(1층 A홀), 지방자치단체 농수축산물 및 주류음료관(1층 B홀), 가공식품 및 푸드비엔날레관(3층 D홀) 총 3개의 전시관에서 33개국 7백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운영됐다.

A홀에는 우수 안전 먹거리가 있는 '우수식품전', 다양한 조리기기 및 주방용품이 있는 '조리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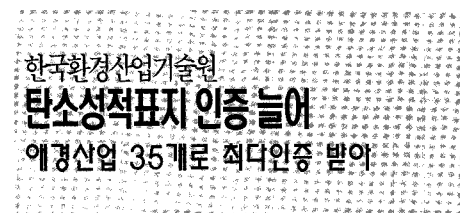
관', 유럽 등 해외 우수 식품문화 상호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제관'이, B홀은 우수브랜드 농산물 및 가공품, 축산물 등의 '농수축산물관', 막걸리 엑스포가 열리는 '주류음료관'이 배치되었다.

D홀은 식자재, 주방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전시된 '가공식품관', 벤처농업 CEO의 꿈과 열정이 담긴 농가음식과 농산물 및 농산물작품 전시되는 '오리엔탈푸드아트페어'와 요리와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서울쿠��쇼' 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식품컨퍼런스는 제1회 아시아 식품포럼 등 총 14개의 식품관련 컨퍼런스가 코엑스 전시관 13층 컨퍼런스룸에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제1회 아시아 식품 포럼에는 세계적 식품기업인 제네럴 밀스사 선임이사, 네덜란드 푸드밸리 사무국 대표이사 등 세계적 식품 관련 유력인사 7명이 참석 "글로벌 식품산업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9일은 19개국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11월 9~10일은 국내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업무를 20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2년 반 동안 시행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

정책기관

질적인 집행업무 추진과 저탄소사회 구현에 기여하였고, 기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자발적으로 모색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제품군은 우유·세제·수돗물 등 생활밀착형 상품, 바다재·벽지 등 건축자재, KTX·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서비스, 냉장고·세탁기·컴퓨터·프린터 등 에너지 사용제품 등이며, 2011년 8월 현재 총 434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주요 제품군은 세제, 식음료, 미용제품과 같은 비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55%(240개), 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등 에너지사용 내구재제품이 그 뒤를 이어 23%(99개)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사용내구재의 경우, 승용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컴퓨터, 보일러, 청소기, 가스레인지, 휴대전화기 등 26종 9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세계적으로 가정용 전기전자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탄소라벨링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국가별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현황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 한 해 동안 1백90개의 제품이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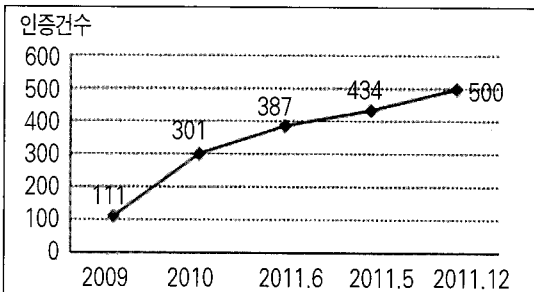
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전년(2009년도 111개 제품 인증)대비 약 1백7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총 5백여개(누적기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예상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탄소라벨링을 추진 중인 전 세계 12개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인증제품 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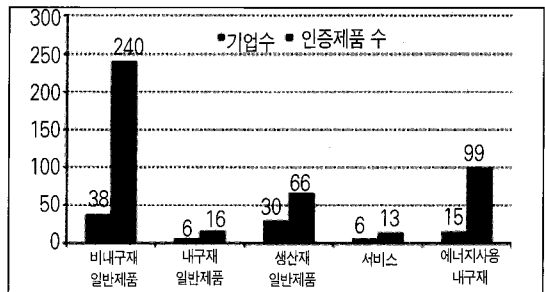
제품군별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현황제도 시행 이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애경산업으로 3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30개 제품)와 LG전자(27개 제품)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인증을 받았다.

최근 제10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기업, 16개 제품이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삼성SDI의 리튬이온2차전지(원형셀, 18650-22F)와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갤럭시탭 10.1", SHW-M380) 제품은 동종품목 중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 외 하이닉스반도체(32Gb NAND Flash MLC), 삼보컴퓨터(DreamSys-G5), 애경산업(순샘 발효 오토밀 1kg 외 4종), 코오롱 인더스트리(포장필름), 롯데칠성음료(칠성사이다 500ml, 1.5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증가추이



▲ 제품군별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현황

1), 주연테크(JY-환타스틱HT26C), 기아자동차(프라이드1.4 스마트M/T), 현대자동차(i40 1.0 자동)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하였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증가추이에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녹색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생산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율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2011년 11월부터 본격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향후 수출제품 생산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그린카드'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에코머니, 1-5%)를 지급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녹색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환경부고시 제2010-52호)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 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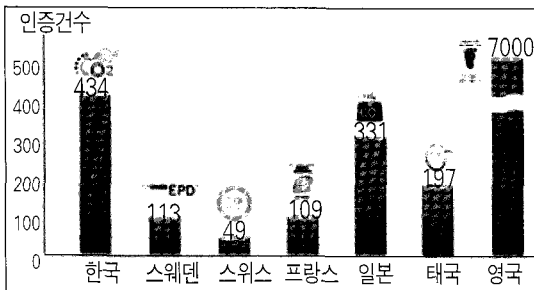
경우, 최대 2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9개의 건축자재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달청의 "녹색제품 종합낙찰방식 적용" 사업과의 연계·확대를 통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개정('11.8 시행)하여 에어컨, 세탁기, 데스크톱 컴퓨터, LCD모니터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종합낙찰제 항목 중 환경평가를 위해 탄소성적표지 인증결과(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5.5%가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라고 답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68.8%)은 "탄소배출량 정보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9명(90.2%)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도 조기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주요 국가별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현황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

동반성장위원회

중기적합업종 선정

실제 이행 갈등 조짐

두부와 LED 조명, 레미콘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행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발표 직후 해당 기업 간에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LED 조명 업계는 지난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문과 대량 생산 가능 제품(벌브형 LED, MR, PAR) 3개 품목에만 주력하도록 했고, 공공시장 참여도 제한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해 시장 진출을 막았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외국기업에 안방을 내주게 생겼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도 물 건너갔다”고 크게 반발했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 삼성LED와 LG전자가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GE 필립스 오스람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에 따른다면 현재 국내시장을 60% 장악하고 있는 외국기업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LED 조명과 레미콘은 대기업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국내 산업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도 “발표 내용에 동참하겠다”면서도 향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을 염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 간(B2B) 시장에 발을 못 들여놓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간(B2C) 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급식과 외식 등 B2B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성장성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먼저 포장용 대형 판두부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포장용 대형 판두부 사업을 접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동반위에 먼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포장용 대형 판두부로 연간 30억~4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풀무원도 “중소기업시장 진입 자체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치와 김, 어묵 등은 워낙 중소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장 대기업들은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 분야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이 진출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업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성장성이 높은 B2B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 철수나 축소 권고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대기업의 이행 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 노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니터링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반위 권고에 대기업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위는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회가 연기됐거나 반려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톱PC는 세 차례 절충을 시도했으나 대기업 반발이 거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심의회를 연기했고,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레미콘의 적합업종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레미콘 분야에서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일부 사업 철수와 사업 축소 등 1차 발표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 납품단가 타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 처음

지난 7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골판지포장조합이 협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조정신청에 나서며 관심을 모았던 골판지업계의 납품단가 협상이 4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군인공제회와 골판지포장 중기업체인 D사의 납품단가 합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측의 합의안은 군인공제회가 납품단가를 7.5% 인상해주고 납품업체인 D사는 이를 수용하며 소급기간은 8월이나 9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당초 D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22.7%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요구안의 3분의1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7월 D사의 요청에 따라 원자재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측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측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고 9월 말 조합에서 중기중앙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강제 분쟁조정을 청구해 다시 양측의 협상이 재개됐다. 골판지포장조합 관계자는 “D사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짓기를 위해 납품가 인상분이 턱없이 낮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7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협동조합의 강제 분쟁조정 청구 역시 첫 사례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제15회 금형의 날

금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동섭)은 지난달 18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금형의 날

「우수자본재 개발유공」 정부포상 및 「금형의 날 유공」 장관포상 명단

훈격	인적사항	공적 개요
동탑 산업훈장	레이젠(주) 하광운 회 장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전력 소비제품인 47" 고휘도 3D용 Modular type Dimming BLU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850억원의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확대에 기여 ○29년간 정밀금형 기술개발에 전력하였으며, 고광택 ER-Mold의 일본수출 개척 및 수출증대에 앞장 서는 등 우리나라 전자산업 및 금형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공헌
국무총리 표창	(주)프라코 박병희 부회장	○국내 자동차금형의 선두 주자로서의 금형가공타입 인버저블 조수석 에어백 도어를 개발 ○26년간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금형 전문업체에 몸담으며 신기술개발에 전력하여 국내 최초로 PP PLASTIC소재를 적용한 BUMPER금형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금형기술의 선진화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	(주)삼화이엔피 김무진 대표이사	○현대 단말기용 금속베젤 성형금형 및 성형방법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PRESS 가공화 기술을 확보 ○전자, 휴대폰 정밀 프레스금형 및 부품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85억원의 원가절감과 연간 200억원의 수출증대로 국가경제발전에 공헌
장관표창	동하정밀(주) 감광규 대표이사	○SSD 1.8" Universal TOP Case 금형 국산화개발, 컴퓨터 픽업 프레임 금형개발 등으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 ○부천시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삼원금형정공(주) 유문영 감 사	○언더컷 제거를 위한 사출금형('09년) 등 3종의 국산화 개발 ○영국, 슬로바키아, 중국 지사 설립, 태국('02년), 인도('04년), 멕시코('08년) 현지법인을 설립을 지원하여 금형 수출 증대 및 위상강화에 기여 ○영세 금형업체들이 생각하지 못한 산재보험요율 적용시 정밀금형의 당위성을 설명, 금형업체의 산재 보험요율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
장관표창	영남이공대학 임상현 교 수	○금성통신/LG전선 금형부문 재직('73.4~'96.2)시 노하우를 바탕으로 '96년 영남이공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육성 및 교육선진화 진력 ○한국금형기술사회 회장('03~'05) 역임 및 국제기능올림픽 국제심사위원('97년, '99년), 차세대 금형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 운영위원('07년) 등을 역임하면서 금형산업의 산학협력 연계 발전에 기여
장관표창	(주)신한금형 이기학 차 장	○'87년 5월 입사이래 가전 및 자동차용 부품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미세홀 기계가공 기술을 현장에 도입, 초대형 금형제작의 기반 확립에 공헌 ○사출금형용 게이트 자동 절단장치 기술개발을 통한 금형의 변형방지 및 수명연장에 중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정별 업무 DATA화를 통해 20%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장관표창	(주)포스코티앤씨 강석조 과 장	○'97년 11월 연구소 입사이래 대형 모터 3열 금형 및 펜슬코어 금형의 국산화개발('02/'04년)에 참여하고 적층배럴 가압구조 등 6종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에 공헌 ○국책과제 수행 및 산학연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창의적 기술개발에 기여



행사를 갖고 유공자를 포상했다.

금형의 날 행사는 금형산업의 중요성과 기술을 홍보하고 세계 금형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97년부터 매년 11월 20일을 "금형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업계, 학계 등 금형산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하여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향후 금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포상에서는 3D TV용 BLU(Back Light Unit)개발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에 기여한 (주)레이젠의 하광훈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주)프라코 박병희 부회장 등 27명이 국무총리표창(2명), 지식경제부장관표창(5명) 등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김재홍 실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의 품질과 개도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위기상황에서 금형산업 첨단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일류 금형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당부했다.

기계산업진흥회

2011 기계의 날

산, 학, 연 간 교류의 장 마련

2011 기계의 날」행사가 지난달 11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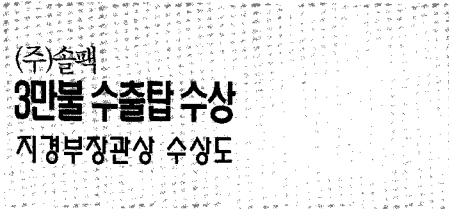
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기계의 날 행사는 산·학·연 공동으로 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계산업인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행사는 기계분야 5개 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총괄주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2002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 기계산업 유관기관, 기계산업 CEO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2020년 Global Top5 도약을 다짐하는 기계산업인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상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에코셋 김형태 대표 등 3명에게 지식경제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의 품질과 개도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위기상황에서 친환경, 고효율, 고정밀화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부품·장비 국산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기계분야 R&D투자의 확대와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계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NNO-BIZ기업이자 벤처기업인 (주)솔팩(대표 이사 김은갑)이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3백만불 수출탑 수상하고 최준혁 기술부장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표창을 받는다.

올해는 수출 5천6백억불, 수입 5천3백억불로 전체 1조9백억불 계획을 세워 수출입 1조불을 달성하는 해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어 세계 9번째 국가가 된다.

솔팩은 2008년 1백만불 수출탑에 이어 3년만에 3백만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15년 1천만불 수출을 목표로 총력 경주하고 있다.

수출 국가는 25개국에서 향후 3~4년 안에 35개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중점 개척국가는 유럽과 아프리카이다.

수출 3만불을 달성하게 된 것은 첫 째로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의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로 전환한 결과이다.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 A/S(AFTER SERVICE)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치 및 시운전으로 출장을 갈 경우, 이미 기존에 납품해서 사용중인 기계를 B/S(BEFORE SERVICE) 해주고, 일부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장치로 성능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였다면, 업그레이드된 제반내용을 갖고 C/S(CONSULTING SERVICE) 하는

것으로 2호기, 3호기의 주문은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부장은 ABC서비스를 솔선수범해서 목표를 완성,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을 받게 되었다.

두번째는 대표이사의 끊임없는 개발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들 수 있다.

2010년은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인 수평형 1열 고속 분말 포장기계 및 자동정렬기계로 고속포장기계에서 포장된 완제품을 집적 정렬시킴으로써 (생산능력 800 PACK/분) 고객의 요청에 적극 대처한 바 있으며 대당 10만불을 LINE UP해서 30만불로 수출금액을 높여 판매하게 되었다.

2011년 중기청산학과제는 사셋포장기계에서 나온 제품을 집적해서 카토너까지 LINE UP하는 개발과제로 국내외 식품/건강식품/제약회사에서 따로따로 2대의 기계를 구입했으나, 고객은 LINE UP된 기계를 한 업체에서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를 해결하고자 연구에 박차를 가해 중간에 연결되는 정렬 및 집적장치를 개발한 결과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앞에 언급된 2가지 개발과제는 정부와 대학과 업체가 함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됐다.

솔팩은 2015년 약 35개국 1천만불 목표달성을 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좋은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적기에 생산 납품할 수 있도록 재무장하고, ABC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김 사장의 연구개발의지는 끊임없이 이어져 매출대비 10%를 연구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동원그룹
세네갈 수산 캔회사 인수
아프리카 유럽시장 공략

동원그룹은 세네갈 수산 캔회사 SNCDS를 21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SNCDS는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아프리카 최대 수산캔회사로 연간 2만5000t의 참치·정어리 등을 가공 생산할 수 있다.

동원그룹은 세네갈에 신규법인을 설립해 SNCDS를 운영하게 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현지에서 2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전수로 지역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SNCDS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회사 스타키스트를 통해 미국에도 SNCDS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네갈 정부도 이번 투자를 계기로 동원그룹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네갈은 동원그룹에 선망선과 트롤선 등의 어획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수산식량 자원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어획권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동원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은 “이번 투자는 수산식량 자원확보란 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계 참치 어획량 1위 기업인 동원산업은 안정

적인 수산식량 자원 확보와 수요처를,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동원시스템즈는 납품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통신기술
디자인상 6년 연속 수상
독일 국제디자인 공모전

삼성그룹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대표 김정묵)은 독일 국제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제품부문에 △삼성 월 패드(SHN-8327, SHT-3507)2종과 도어카메라(SHT-CN610) △디지털도어록(SHS-3320)이 각각 수상했으며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월패드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패키지 부문에서는 재생지 사용과 콩기름 잉크인쇄의 제품 공용 패키지가 각각 상을 받았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트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수상작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삼성 월 패드는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는 홈 컨트롤 기능 외에 방문자확인, 일반전화 및 경비실 통화기능 등 홈 네트워크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롯데마트는 14일 PLMA가 주최한 PL 바이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PB(자체상표/Private Brand) 상품인 스마트 에코 티슈가 친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PLMA(Private Label Manufactures

업계동정

Association)는 매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전 세계 35개국, 2000여 PB 제조사가 참여하는 세계 PB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PL 바이어 디자인 어워드는 PB상품 디자인 출품작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식품, 비식품 등 총 14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PB상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아시아 유통업체가 PL 바이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수상작인 스마트 에코 티슈는 상품 포장 인쇄시 생분해도가 높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고 디자인에 멸종 위기동물인 북극곰 여우 펭귄 이미지를 넣어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인쇄 도수를 낮춰 잉크 사용을 최소화 했고 미용티슈가 일부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면적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티슈보다 크기를 5cm 정도 축소했다.

**ANS개발
자동우산포장기 인기
제품명 옴니팩**

우산 자동포장기·우산비닐 전문기업 ANS개발(대표 신동안)의 우산 자동포장기 브랜드 옴니팩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산 자동포장기는 비나 눈이 내릴 때 우산에서 고여 있던 물이 실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장 입구에 설치하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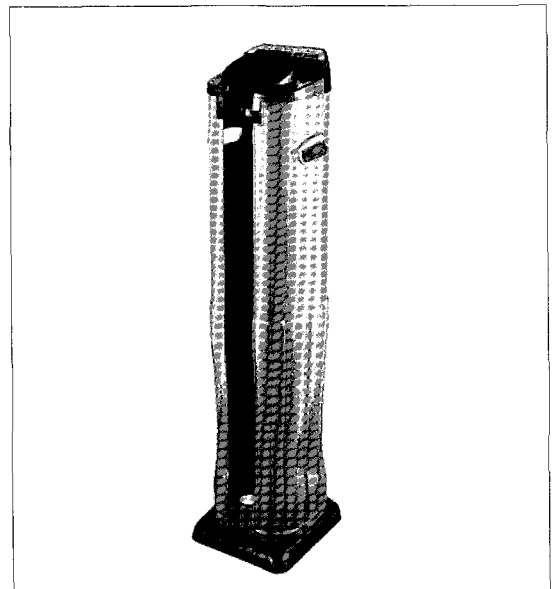
우산에서 떨어진 낙수는 매장 실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실수로 미끄러지는 등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옴니팩 자동포장기는 고객 출입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고객들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업체나 매장에서 유용하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젖은 우산을 옴니팩 윗부분 동그란 입구 캡에 넣으면 방수 비닐이 자동으로 포장된다. 포장된 우산을 천천히 앞으로 당겨 비닐을 뜯어내면 끝이다.

우산 자동포장기는 빗물이나 눈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일반적인 철 재질 소재로 제작됐다면 녹으로 인해 제품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옴니팩 제품은 플라스틱 신소재로 만들어졌다. 옴니팩 제품은 비닐을 씌우는 입구를 넓혀 우산을 넣기 위해 손으로 젖은 우산을 만져야 하는 기존 우산포장기의 불편함도 개선했다.



▲ ANS개발 자동우산포장기

신동안 대표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본적으로 쉽게 불쾌해지는데 젖은 우산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특히 불쾌지수를 높인다”며 “우리 제품은 원터치로 간편하게 우산을 포장할 수 있어 고객 불쾌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옴니팩 우산포장기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에 대해서는 3년간 무상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S개발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제 041123032-1-00827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6011-3513호)으로 지정됐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출유망중소기업(제08서울-113호)에 선정됐다. 올해는 하이서울브랜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02)3439-0355 www.omnipack.co.kr

매일유업
팩스타상 수상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

매일유업은 최근 리뉴얼한 매일우유와 카페라떼가 ‘2011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에서 디자인상인 ‘팩스타 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0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에서 상하목장과 퓨어가 팩스타 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은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제품 패키지 디자인



▲ 매일유업 팩스타상 수상

관련 대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수상작은 제품 포장을 구성하는 독창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판매 촉진에 용이하고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모든 수상작은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출간하는 도록에 수록되며, 디자인협회·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교재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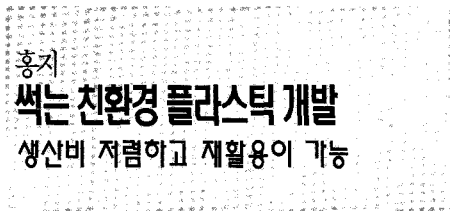
이번에 수상한 매일우유 제품은 최근 리뉴얼한 것으로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90년대 매일유업의 심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레쉬 에너지(Fresh Energy)’ 디자인이다.

프레쉬 에너지 심벌은 에너지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양과 만개한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우유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함께 담았다. 매일우유와 공동 수상한 카페라떼 제품 또한 신선하게 볶은 원두에서 바로 뽑은 커피의 풍미를 더욱 강화하면서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주요 소비층인 20대의 감성에 맞춰, 커피 본연

의 속성을 세련되고 심플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제는 제품을 넘어 디자인을 소비하는 시대”라며 “매일유업은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하고, 마시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격이 싸고 쉽게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한 국내 업체가 개발해 주목된다. 친환경 포장재 전문업체 홍지(대표 김관수)는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보다 생산비가 저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잘 알려진 생분해 플라스틱은 6개월이면 자연 분해되지만 열과 충격에 약해 장기간 유통이 힘들고 발효식품 보관이 어렵다. 또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홍지는 생분해 수지와 산화제 등을 첨가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자연 분해 기간은 2년 정도로 길어졌지만 생산비가 저렴하고 재활용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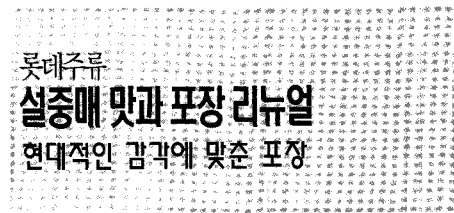
홍지 관계자는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고 독일 바스프 등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용 비닐인 멀칭 필름은 1롤에 1만원 정

도다.

홍지가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도시락 용기, 쇼핑백, 비닐봉투, 식품포장 판매용기, 산업·농업용 비닐 등에 이용된다.

홍지는 올해 3월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 하반기 관련 매출 20억원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총매출은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영국 인도 등에 수출해 이곳에서만 300억원 가까운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매실주 실중매의 맛과 포장을 바꾼 리뉴얼 제품을 23일 출시했다.

리뉴얼 제품은 설탕 대신 열량이 적은 대체 감미료 에리스리톨을 첨가해 당 칼로리를 50% 이상 줄이고 상큼한 맛을 강화했다.

용기도 ‘눈 속에서 핀 매화’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명에 맞춰 하얀 바탕에 붉은 매화꽃을 그려 넣었고 한자 브랜드명을 한글 서체로 바꿔 주목성도 높였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음주 문화에서도 웰빙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리뉴얼했다”며 “포장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바꿨다”고 말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로 기존과 같고 출고가가 380ml제품이 3047원, 금가루가 첨가된 385ml는 4760원으로 이전 제품과 동일하다.

LG생활건강
구취전문 치약 출시
 수결이 닿는 거리 컨셉

LG생활건강(대표 : 차석용)은 수결이 닿는 46cm 거리 내에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구취를 99.9% 제거하는 국내 최초의 구취 제거 전문 브랜드 「페리오 46cm」를 출시했다.

「페리오 46cm」의 브랜드 네이밍은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리가 46cm라는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학설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눈금자와 돋보기를 패키지 전면에 디자인하여 제품 컨셉트인 ‘수결이 닿는 거리 46cm’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 블루 화이트 컬러의 「페리오 46cm」의 패키지는 눈금자로 잴 듯 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페리오 46cm」는 구취 제거에 최적화된 치약, 칫솔, 가글, 스프레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페리오 46cm」 치약은 ‘와일드쿨민트’, ‘롱래스팅쿨민트’, ‘리프레싱카모마일’ 등 3종으로, 항균제 트리클로산과 소취 성분 베이킹소다를 결합한 성



▲ LG생활건강 구취전문 치약 출시

분이 12시간 동안 구취 제거 효과를 지속하여 취침 전 양치로 아침까지 구취를 억제해준다.

「페리오 46cm」 칫솔은 헤드 뒷부분의 혀 클리너 기능으로, 혀 표면을 세정해 구취제거에 도움을 준다. 또한, 「페리오 46cm」 가글액은 국내 최초로 항균 및 구취균 제거와 동시에 충치 및 치은염 예방, 치태 제거, 치석 방지까지 토털 케어 해준다. 「페리오 46cm」 스프레이는 천연 잔트의 항균효과로 간편하게 구취균을 제거한다.

심미진 LG생활건강 페리오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 조사 결과, 입을 가리고 대화하거나 양치 뒤에도 껌을 활용하는 등 구취 제거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게 나타났다”라며, “「페리오 46cm」는 국내 최초의 구취제거 전문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으로 고객의 관심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체치환포장 수산물 공급
 신선도 높여 소비자 만족

홈플러스가 산소 비율을 높인 기체를 주입해 신선도를 높인 수산물을 29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판매한다.

기체치환포장(MAP)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산소 40%, 질소 30%, 이산화탄소 30%로 구성된 혼합 기체를 주입해 미생물 번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포장기법이다.

MAP가 적용된 수산물은 조갯살, 갑각류, 해

조류 중 바지락 살과 새우 살, 미더덕, 흑고둥, 재첩, 매생이와 같이 상온에서 부패하기 쉬운 17 가지다. 이들 수산물들은 산지에서 채집된 후 두 차례 세척과 MAP 기계를 이용한 밀봉 과정을 거쳐 냉장 차량으로 집포까지 배송된다.

**카스
산업포장 수상**
전자저울 분야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 박성원 카스 부사장

박성원 카스 부사장(사진)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전자저울 수출을 주도하는 데 선봉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전자저울 분야에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는데 큰 공로를 세워 제41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에서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박 부사장은 1985년 카스에 입사한 이래 26년간 영업, 연구개발, 해외수출 등 회사의 전 부문을 두루 거치면서 불모지였던 전자저울 시장을 몸소 체험했다.

이를 통해 상거래시 전자저울 사용은 물론 정직과 신뢰를 토착화하는 데 절대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스는 1983년 설립 이래 전자저울 한 분야만 집중 파고들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화, 전문화, 세계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전세계 13개 지사 및 법인을 두고 있고, 130여개국에 전자저울을 수출함으로써 강소 기업으로서 면모를 자랑한다.

카스는 스트레인게이지라는 로드셀무게장치를 세계 4번째로 개발해 이를 상용화, 전자저울에 적용했다. 상업용 저울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다. 초정밀저울 분야는 2014년 이후 전 세계 1위가 목표다. 카스는 전자저울 분야뿐 아니라 산업의 시스템사업에도 한 획을 그을 계획이다.

**유화업계
FTA로 수출 증가 기대**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듯

석유화학업계는 폴리스틸렌과 에폭시수지 등 범용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석유화학 수출제품은 폴리스틸렌 ABS 등 합성수지와 벤젠 톨루엔이고, 수입 품목은 자일렌 부타디엔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제품과 폴리아미드 실리콘수지 등 고부가 합성수지다.

폴리스틸렌은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폴리스틸렌은 품질이 캐나다나 멕시코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FTA가 발효되면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스틸렌은 관세가 6.5%로 FTA 발효 시 즉시 철폐된다.

폴리스틸렌은 포장재 건축자재 자동차 관련 소재로 쓰이는 범용 플라스틱 원료다. 에폭시수지는 6.1%인 관세가 FTA 발효 시 즉시 철폐됨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에폭시수지 대미 수출액은 3400만달러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저장장치는 관세율이 각각 5.8%와 3.5%인데 FTA 발효로 관세가 각각 10년, 즉시 철폐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21%나 증가한 1016만달러어치 폴리카보네이트를 미국에 수출했고, 올해도(1~7월) 620만달러어치를 팔았다. 탄소 포집·저장장치는 지난해 약 18만달러 규모를 미국에 수출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국에 밀렸던 한국 석유화학 제품이 FTA를 계기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됐다”며 “향후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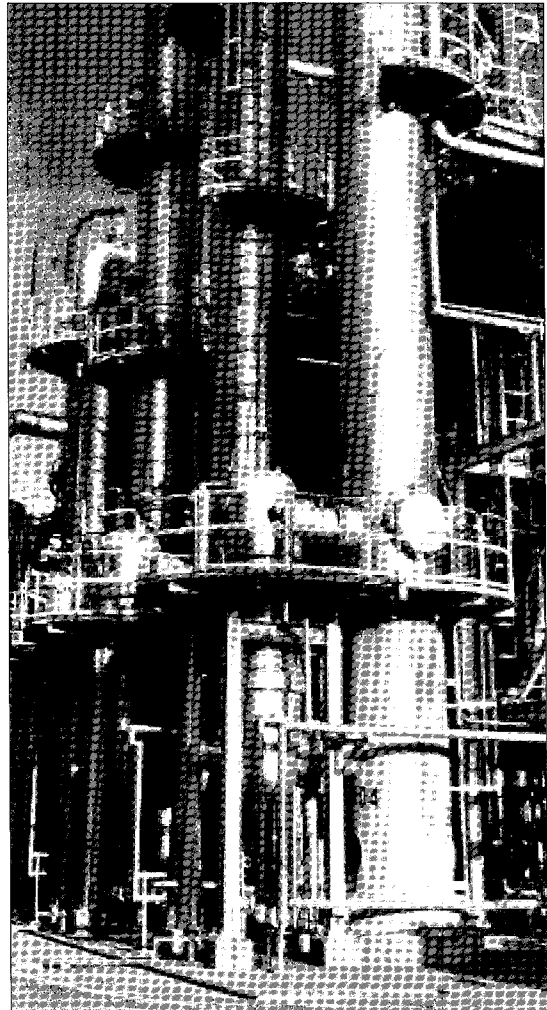
석유제품도 최대 배럴당 84센트인 관세가 한·미 FTA 발효 직후 철폐되기 때문에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타이어코드 베어링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과 ABS 등 합성수지는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관계로 중장기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 볼트 너트 화학기계 증기터빈부분품 등 기계류, 사진영화용 재료 등 정밀화학제품, 일부 석유제품, 섬유사 등은 관세 수준이 높아 FTA로 단기간(즉시 또는 5년 철폐)에 관세 철폐 시 상당한 효과가 전망된다.

연료전지 관련 품목은 3.4~3.5%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됨에 따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료전지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2015년에는 1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6500만달러) 일본(3500만달러)에 이어 미국에 연료전지를 연간 1000만달러가량 수출하고 있다.



▲ 유화학계 FTA로 수출 증가 기대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듯

지오파키지
비주얼 마케팅의 시작
 인쇄테이프 소량제작전문

비주얼이란 '시각적'이란 뜻이다. 그리고 '비주얼디자인'이란, 재래의 상업디자인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로, 상업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경제생활의 진전과 조형 요소의 발전 속에서 '시각적 전달'이라는 것을 보다 강조할 경우에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소비자들이 공존하는 현재, 상업디자인만으로는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비주얼 디자인과 함께 마케팅도 비주얼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는 '비주얼마케팅'만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며, 비주얼한 요인의 추구는 상업디자인에 응용될 뿐 아니라 보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시각에 호소하여 의사의 소통을 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쇄테이프를 통해 비주얼마케팅 시대를 도모하는 '지오파키지(대표 오선호)'가 화제다. 지오파키지는 소량생산 및 디자인 기획광고용 테이프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인쇄테이프전문 회사이다.

마케팅이 더욱 다양해짐과 함께, 이제는 접착을 용도로 만들어진 테이프의 좁은 면적까지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렸다. 대형 마트의 박스포장대에서 해당 마트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테이프를 사용한다던가, 소량

몰에서 상품 포장 시 예쁜 무늬가 들어간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받는 고객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다. 테이프도 광고 시대에 동참하며 비주얼 마케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업테이프와 캐릭터기획광고용테이프 등, 디자인테이프가 비주얼마케팅의 일부가 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디자인테이프제작과 테이프인쇄가 마케팅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오파키지는 무동판 인쇄테이프를 통해 색상표현 무한대, 20도 실사 인쇄테이프로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촉발시키고 높은 기업광고효과를 도모하였기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체에서는 대량생산 체제로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최소 1천3백 개 이상이 되어야 주문이 가능한 체제이기에, 중소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비용부담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에 지오파키지는 무동판제작을 통해 불필요한 동판제작비를 없앴으며, 최소 200롤의 테이프소량제작으로 제작비용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 지오파키지 비주얼 마케팅의 시작



뿐만 아니라 디자인 변경이 자유롭고 색상도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며, 지역특산물 광고나 기업 프로모션, 미아 찾기 캠페인 광고 등. 높은 광고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경쟁사 없는 아이디어상품을 통해 국내 산업용 테이프 시장의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 현재 전국 대리점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환경 에너지 절약에 일조하며 공익기업으로써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2012년에는 해외 사이트 운영 및 영업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오판키지. 비주얼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개발로 국내 인쇄테이프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갈 지오판키지의 행보가 기대된다.

기능성 차 전문 업체 티젠은 간편하고 위생적인 액상캡슐형 전통차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스틱형 차의 장점인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기존 액상차와 동일하게 신선한 과육도 담은 신개념 전통차다. '건강한 생강유자차'와 '건강한 홍삼대추차' 2종으로 구성됐다.

보관과 덜어 마시기 어렵고 공기와 접촉이 잦은 기존의 병 액상차와 달리 1회 제공량이 개별 포장돼 있어 변색의 염려도 없고 위생적이다. '건강한 생강유자차'는 거제산 유자에 생강농축액을 담은 제품으로, 비타민C 100mg이 들어있어 하루 한 잔이면 1일 권장량의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건강한 홍삼대추차'는 100% 국산 홍삼과 인삼을 넣어 대추차와 홍삼차를 한번에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각각 1박스 20g 14개 캡슐 4500원. 티젠 황대봉 마케팅 팀장은 "기존 전통차는 강한 맛과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었다"며, "지나치게 달거나 쓴 맛을 줄이고 간편한 캡슐형 패키지를 도입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웰빙 겨울 음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브이엠
대통령상 수상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 JVM · 대표 이용희

제이브이엠(JVM · 대표 이용희 · 사진)은 1978년 수동 약 포장기로 시작해 33년 동안 병원·약국 자동화의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다.

전자동 정제 자동 분류 포장 시스템(ATDPS)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를 달리고 있다. 북미 병원·약국의 74%, 유럽 78%, 국내 90%가 JVM의 시스템을 쓰고 있다.

ATDPS는 의사가 내린 처방을 온라인으로 약사가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대로 정제·분류·조제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조제된 이력은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조제에 대한 추적 관리도 가능하다.

전 세계에 등록 270건·출원 17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JVM은 2010년 한국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KOTRA 보증브랜드 기업, 2011 KB히든스타 육성대상기업 등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을 작년 565억원보다 40%가량 커진 8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농심
‘쌀국수 짬뽕’
 쌀로 만든 얼큰한 정통 한국식 짬뽕

농심의 ‘쌀국수 짬뽕’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시 직후 1개월 만에 200만개 이상의 판매고,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올 겨울 면류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쌀국수 짬뽕’은 최근 열흘 동안 100만개를 판매하며 출시 40일 만에 300만개 판매고를 달성했다.

이는 최근 열흘 간, 지난 한달 간의 판매 기록 대비 150%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2달 안에 1,000만개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쌀국수 짬뽕’의 월 판매량은 면류 시장 내 10위권 내 수준이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의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된 얼큰하면서도 자극적인 맛,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식재료인 쌀로 만든 면, 최근의 웰빙 트렌드 등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체대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쌀국수 짬뽕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정통 한국식 짬뽕을 그대로 재현한 ‘깊고 얼큰한 맛’이다.

이 제품은 한국식 짬뽕 특유의 깊고 얼큰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 라면류에 대중적으로 적용하는 분말스프가 아닌 고가의 냉장 면류에 적용하는 액상스프를 사용했다. 오징어, 버섯, 당근 등 건더기 스프의 양도 기존 라면보다 2배 이상이다.

고급화된 스프와 건더기는 중국집에서나 먹을 수 있던 정통 짬뽕을 간편하게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며 소비자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익숙한 소재로 만든 ‘쌀면’도 인기 요인이다. 쌀을 80% 사용해 만든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가래떡처럼 뽑아낸 후 바람에 건조시켜 만들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원료로 만든 만큼 밀가루 면에 비해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 쌀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시원한 짬뽕국물과 만나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 못지 않는 맛과 면발을 구현했다.

웰빙 트렌드도 쌀국수 짬뽕의 인기에 부채질을 했다. 쌀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려 만들어 유당면 대비 칼로리가 약 20% 낮다.

실제로 제품 출시 이후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식행사에서 웰빙 트렌드에 민감한 타깃인 젊은 주부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쌀국수 짬뽕은 현재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거센 입소문을 타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밖에서 먹는 짬뽕보다 위생적이고 간편하다’, ‘웬만한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얼큰한 국물 맛이 중독성이 있다’ 라는 평가다.

올 겨울 즉석 조리면 시장에서의 농심 ‘쌀국수 짬뽕’이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신 제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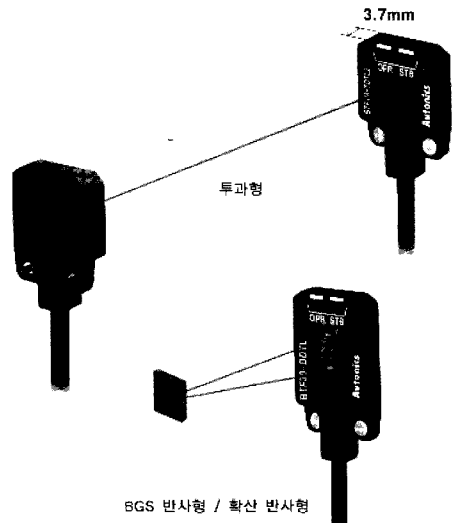
(주)오토닉스

초박형 포토센서 BTF 시리즈 출시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朴煥基, www.autonics.co.kr)는 초박형 포토센서 BTF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BTF 시리즈는 오토닉스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원칩 포토 IC 채용으로 두께 3.7mm의 초박형 사이즈를 실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며, 적색 LED 가시광원을 적용하여 검출 spot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최소 $\varnothing 0.2\text{mm}$ 의 미소한 비광택 물체까지 검출이 가능하며, IP67의 보호 구조를 실현하여 뛰어난 성능을 구현한다.



(주)오토닉스

실속형 PID 제어 온도조절기, TC 시리즈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朴煥基, www.autonics.co.kr)의 실속형 PID 제어 온도조절기 TC 시리즈가 출시 2년 만에 단일 모델로는 최고 수준인 16만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오토닉스 온도조절기의 제어 성능 우수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TC 시리즈는 온도 제어의 필수 기능은 모두 탑재하면서도 경제적인 가격을 실현한 실속형 온도조절기



업계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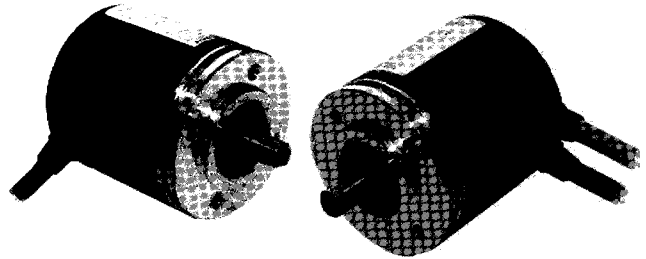
로서, 신개발 PID 제어 알고리즘 채용 및 100ms 고속 샘플링을 구현하여 이상적인 온도 제어를 실현하였으며, SSRP 출력과 릴레이 출력 동시 내장으로 경제적, 효율적인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콤팩트한 사이즈에 대형 표시부를 채용하여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오토닉스는 TC 시리즈를 비롯한 TK, TM, TA, TD 시리즈 등 새로운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오토닉스 온도조절기 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온도조절기 업계 수출 1위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오토닉스

축형 멀티턴 앱설루트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 (대표이사 朴煥基, www.autonics.co.kr)는 축형 멀티턴 앱설루트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에, 측면 배선 인출형 모델을 추가하면서, 취부 공간 절감은 물론 다양한 설치 환경에 최적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EPM50 시리즈는 23bit의 분해능과 정밀도로 1회전에 대한 절대 위치값과 회전수를 카운트한 값을 동시에 출력 가능하며, 두 가지 출력 형태(Parallel, SSI)로 사용자 선택 폭을 한층 넓혔다. 또한 오토닉스가 업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EPM50 시리즈는, 고정밀 모터 제어와 산업용 로봇 등의 제어에 폭넓게 적용된다.

CJ제일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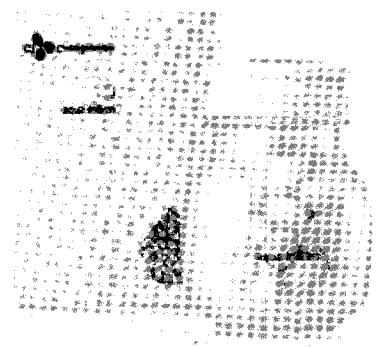
‘이너비 아쿠아인앤온’ (innerb aqua in&on)을 18일 출시

CJ제일제당 먹는 화장품 ‘이너비’가 한층 더 성분을 강화한 신제품 ‘이너비 아쿠아인앤온’ (innerb aqua in&on)을 18일 출시했다.

‘이너비 아쿠아인앤온’은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해 피부 속보습(in)만이 아닌 피부 겉보습(on)까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보습제인 ‘히알우론산’ 성분에 피부 겉 표피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 소재 ‘세라마이드’를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개별인정형 피부보습 기능성 소재 2가지를 함유한 제품은 ‘이너비 아쿠아인앤온’이 국내 최초다. 세라마이드는 수많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표피의 수분 증발량을 감소시켜 피부결이 매끄럽고 촉촉하게 변하는 결과가 입증된 소재다. 화장품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자연 성분으로 섭취 안전성까지 입증 받았다. ‘이너비 아쿠아인앤온’은 자기 전 2알, 충분한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시간에 섭취하면 피부 수분 균형을 찾는 데 더욱 좋다. 가격은 28일분 8만9000원.



오리온

‘자일리톨 뮤타엑스 펌프’ 2종 출시

오리온 ‘자일리톨 뮤타엑스 펌프’ 2종 오리온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에 뮤타엑스(Muta-X)를 함유한 신제품 ‘자일리톨 뮤타엑스 펌프껌’ 2종(애플민트, 아쿠아민트)을 출시했다.

뮤타엑스는 자일리톨의 효능을 보완해 주는 특허(특허등록 : 제0399767호)를 받은 물질이다.

또한 오리온 자일리톨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자일로스를 가공해 만들었다.

특히 껌을 한 개씩 꺼내 씹을 수 있도록 개발한 펌프용기를 적용해 용기 안에 손을 넣지 않고 자일리톨껌을 한 개씩 꺼내 먹을 수 있어 위생적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일리톨 뮤타엑스는 자일리톨의 상쾌함뿐만 아니라 입안에서의 부드러운 느낌을 고려한 크기와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풀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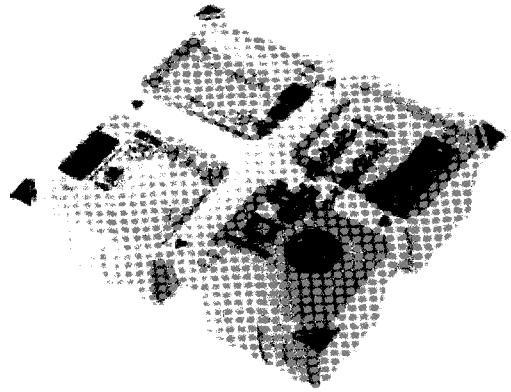
산콩 두부 '신선한 네모' 를 출시

풀무원, 4등분 미니두부 '신선한 네모' 풀무원식품은 두부 한 모를 4등분 해 4컵으로 분리 포장한 보관편의성을 극대화한 국산콩 두부 '신선한 네모' 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두부 한모(340g)를 4등분 해 충진수와 함께 분리된 컵에 개별 포장,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은 두부를 별도의 보관용기 없이 편리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한 네모' 두부 한 컵(85g)은 작은 딱배기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의 1회 요리에 가장 적당한 크기로 국내에서 나온 포장 두부 중 가장 작은 크기다. 또 각각의 컵마다 유통기한이 인쇄돼 있어 두부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신선한 네모' 는 1등급 기준의 국산콩을 원료로 소포제와 응고제, 화학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첨단기법으로 제조, 두부 맛이 고소하고 부드럽다. 가격은 3600원(85g×4컵).XML



세븐일레븐

PB(자체 브랜드)상품인 '오뎅이 들어있는 쌀떡볶이' 를 출시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은 PB(자체 브랜드)상품인 '오뎅이 들어있는 쌀떡볶이' 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제품은 기존 용기 떡볶이 상품과 동일한 2800원이지만 중량은 250g으로 25% 늘었다. 또 쌀 99%를 함유한 떡과 국산 고추장을 사용했다.

냉동·냉장 용기 떡볶이 상품 중 어묵을 포함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조리 방법은 포장된 어묵과 떡을 순서대로 넣은 후 소스를 뿌려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데우면 된다.

최유미 세븐일레븐 신선팀 MD(상품기획자)는 “길거리 대표 먹을거리 중 하나인 어묵 찰떡볶이를 24시간 언제든지 편의점에서 즐길 수 있어 특히 야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내달 6일까지 어묵 찰떡볶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냉장 주스(콜드사과 또는 NEW제주 감귤, 1300원)를 증정한다.

매일유업

‘앱솔루트 맘스마일’ 출시

매일유업은 임신·수유부용 음료 ‘앱솔루트 맘스마일’의 영양소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앱솔루트 맘스마일은 임신부와 수유부의 영양 보충을 위한 제품이다.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분말 타입이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DHA와 칼슘, 철분, 비타민C 등의 영양소를 더 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 기존 제품보다 낮은 개당·바나나 반개 수준의 칼로리로 불어난 체중 고민 없이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코코아와 곡물 등 2가지 맛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했다.

김윤정 매일유업 맘스마일 브랜드 매니저는 “음료 음용에 제한이 많은 임신부는 물론 바쁜 일상으로 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수유부들이 간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모유 수유 전 또는 철분제 복용 후 마시면 영양 보충과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격은 스틱 15개입에 1만2300원이다.

